

일 주 문



대총대중사 탄신 봉축법요  
춘광 천대중 총무원장 스님은 1월 14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대총대중사 탄신 90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월 30~31일 공주 마곡사에서 '2016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를 봉행한다.

손재석 위덕대 명예총장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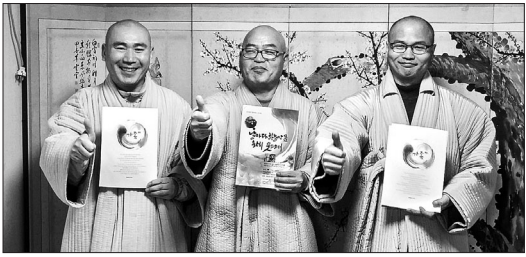
손재석 위덕대 명예총장(사진)이 1월 11일 별세했다.



1931년 출생한 고인은 서울대에 서 수학하며 정치학 석·박사를 받았다. 1959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외 교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사회과학대학장을 지냈다. 1985년 제27대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을 거쳐 1996년 개교한 위덕대 초대 및 2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위덕대 명예총장으로 추대됐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14일 발인했다. 위덕대는 교내에도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콘서트에 출연하는 스님들이 홍보책자를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가·자명·태현 스님.

'가족愛' 퓨전국악 콘서트 열린다

현대사회 가족공동체 개념이 약화되면서 가족구성원 간 소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스님들이 '가족愛'를 주제로 한 콘서트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영탁 기원정사 주지 자명 스님은 1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국립극장 KB국민은행 청소년극장에서 국악퓨전 뽕류부터 콘서트 '날마다 하늘만큼 환히 웃으소서'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엄마', '가족사진',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등 가족을 소재로 한 곡을 중심으로 기획했다.

특히 힐링멘토 마가 스님의 짧은 법문과 명상음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현 스님의 음성공양도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김호철 테너, 박자희 소리꾼, 이지영 뮤지컬 배우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자명 스님은 서울공연 이후 부산·울산·대구·광주·원주·청주 등 7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펼치고, 공연 수익금 전액을 BBS불교방송에 후원해 방송포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항일운동 거점 ‘호국사찰’ 선양”

항일운동불교선양회  
조환기 발기인 대표

“역사적으로 불교계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승려 및 재가자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은 국가와 민족을 되찾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불교는 그 내면의 평화와 화합, 상생'이란 뜻을 두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국내를 비롯해 중국·일본 등에도 선양하고 싶습니다.”

조환기 항일독립운동불교선양사업회(사진·가칭, 이하 항일운동불교선양회·前 동명대 교수) 발기인대표는 1월 11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출범 취지를 밝혔다. 항일운동불교선양회는 항일독립운동을 펼친 불교계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송고한 업적을 계승·선양기 위해 창설된 단체다. 정식 발기인은 27명이다.

“항일운동에 참여한 불교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업적은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숨 쉬는 전국 사찰과 스님 및 재가자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후세들에게 그 뜻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조 대표의 이러한 뜻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10여 년 전 전국 사찰을 다니던 중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 그때 불교의 항일운동 역사를 접하게 됐다. 많



항일운동 스님 등 업적 계승 목적  
1월 11일 발기인대회, 27명 등록  
“독립운동, 평화·상생 위한 것”  
학술세미나·다례제 등 개최 예정

은 사람들이 선양사업에 뜻을 두고 있었지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예를 들어 사천 다술사와 고성 옥천사는 ‘호국사찰’로서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가치는 점점 잊히고 있습니다. 옥천사는 진주보훈지청서 현충시설물로 지정했다는 팻말 표시만 있을 뿐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찰들을 거점으로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호

국불교 정신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항일운동불교선양회는 1월 중 국가보훈처에 사단법인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독립운동을 펼쳤던 불교계 유적지가 도로 이점표에 표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학술 세미나·다례제 등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과 교류를 통해 호국불교 독립운동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역대 선승들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현대 한국 불교계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인간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속세와 더불어 살아갈 뿐입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해 저항하고, 세상에 등을 밝힌단 마음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조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개인적인 뜻을 밝혔다.

“한일 정부의 합의가 피해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항일운동불교선양회 법인과 추진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사회 갈등문제에 대해 불교계 재가단체들과 뜻을 모아 함께 활동하고 싶습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자장성들 조계종 총무원 예방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과 현·예비역 장성, 각군 군승 대표들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국군이 있기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평화가 지속되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문화연수원, ‘모금함’ 자비행



한국문화연수원(원장 구과)은 1월 12일 (재)아름다운동행 측에 자비나눔 기금 174만8000원을 전달했다. 한국문화연수원 내 비치된 아름다운동행 모금함을 통해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구과 스님은 “모금함을 통해 기부하게 돼 매우 뜻 깊다. 앞으로도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금액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박아름 기자

“젊은 불자 교사 발굴에 최선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배한욱 제10대 회장



1월 24일 해인사서 취임식  
지부 활성화·성지순례 계획  
수준 높은 수행프로그램 마련도

“젊은 불자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대표님들을 찾아 그 방안을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여 명의 전국 불자교사들의 수행모임인 전국교사불교연합회 제10대 회장으로 부산 금정중 배한욱(59·사진) 교사가 선출됐다. 이취임식은 1월 24일 해인사에서 열리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직무연수에서 진행되며 임기는 2년이다.

배 신임회장은 젊은 불자 포교뿐 아니라 각 지역 지부 활성화와 성지 방문을 통한 신심 독려 등을 주요사안으로 꼽았다.

“교사불자연합회는 학생들을 불심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수행과 봉사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모임입니다. 군부대 포교 및 다문화 가정교육, 교도소, 사찰봉사

이 짧은 여행을 선정해 많은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배 회장은 특히 “전국교사불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 수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배 회장은 어릴 때부터 불교집안에서 성장했으며 20대 군복무 시절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용산 육군본부 중앙법당 제32대 법우회를 시작으로 포교활동에 동참했다. 제대 후 부산 불교학생회 지도교사, 범어사 중학생활 지도교사, 사)부산과라미타 청소년 협회 사무국장, 부산시교류불자연합회·전국교사불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문화부장관 표창, 2011년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하성미 기자

불교인권위-청림코리아 MOU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1월 1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청림코리아(상임대표 정완규)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정부패 없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대한불교천태종

포항 황해사

주 지 이문덕  
신도회장 최병렬

국내최초  
「관음33응신불」 봉안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169-3  
TEL 054)277-3611~3 / FAX 054)277-3644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휴사

주 지 보정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21  
TEL 053)632-4844,641-4844 / FAX 053)639-5033